

광양, 2022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0일까지 모집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2년도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올해 사업을 종료한다.

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행 대출 실행일)이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해당하며 잔금지불일 기준 2~3주 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5억 원 이하) 또는 전세·임차(3억 원 이하) 예정자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천500만 원 이하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

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8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9천만 원, 3명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임대)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천500만 원, 전세(임대)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 내년도 본예산안 3천454억 편성

구례군은 최근 2023년도 본예산안 3천454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288억 원(8.4%), 환경 분야 328억 원(9.5%), 사회복지 분야 690억 원(19.9%), 농업 분야 634억 원(18.3%), 지역개발 분야 244억 원(7.0%) 등으로 편성됐다.

군 담당자는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을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 남부권 주요 관광지 도약, 살기 좋은 지역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연드림 치유 힐링 클러스터 유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소득 작물 보급, 친환경·스마트팜 구축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사업, 지리산정원을 활용한 생명 치유 가족 단지 등을 조성해 농업과 치유, 자연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부권 주요 관광지 도약을 위해 서민선 7기 수립한 4+α 관광권역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거점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오산 케이볼카 조성 등 오산권역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스마트 공유스테이션, 단달기습곰 보금자리, 화엄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 추진 등 섬진강과 지리산온천, 화엄사 권역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살기 좋은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웰니스 복합센터 건립, 읍 권역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LH 임대주택, 청년하우스, 소규모 공영택지, 농촌 유학센터 등을 조성해 귀농귀촌인 및 관계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경석 기자

곡성군, 오곡 압록지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9일과 30일 양일간 압록 마을회관에서 오곡 압록지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곡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추후 절차에 대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약 200여 명이다. 곡성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시일 내 측량 결과를 담은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우편에 동봉된 의견서를 통해 제출 기한 내에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및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후 다시 결정 통지를 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최종 완료되고 나면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곡성군은 이번 오곡 압록지구 설명회는 곡성군의 금년 마지막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선섭 기자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 없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상황과 현장을 점검하며 총출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 2023정원박람회 현장 점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 없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상황과 현장을 점검하며 총출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14일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 유럽 일정을 마치고 난 19일, 20일 주말에도 곧바로 박람회 장 현장으로 향했다는 후문이다.

취임 직후부터 매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노 이사장은 오전 저류지정원, 동천 뱃길, 어싱길, 국가정원 리뉴얼 공사 현장 등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개막식 등 문화행사와 핵심 콘텐츠에 대해 직원들과 현장토론 등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2023정원박람회의 완벽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노관규 이사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며 "박람회 개막 4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800만 명의 관람객 맞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여수, 2023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에 선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체육시설 지원 3개 사업과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12억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공공체육시설 지원으로는 ▲진남경기장 잔디교체 및 시설 정비 ▲망마국민체육센터 기계실 개보수 ▲망마케이트볼 보조구장 건립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사업으로는 ▲진남야구장 바닥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진남체육관 조명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소호요트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3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체전 준비에 박

차를 가하게 됐다.

앞서 시는 내년 10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 중 4개 종목(야구소프트볼, 배드민턴, 요트, 트라이애슬론)을 유치한 바 있다.

여수시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계획 및 업체 선정 등을 거쳐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전국체전 준비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계획 등을 거쳐 내년 8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